Healing Ⅷ.
종의 영, 자녀의 영

1. 온전한 출애굽

(1) 노예의 신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 이들의 신분은 '종'이다. 종은 신분상 자유가 없는 자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본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함이 없는 권리는 의미가 없다. 종은 귀속된 신분이 대물림 된다.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된다. 그러므로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변화, 신분상승' 일 것이다.

종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는 종일 뿐이다. 종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는 종일 뿐이다. 신분적 제한이 있는 종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어떤 노력을 해도 신분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저 좋은주인 만나서 다른 종보다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희망일 것이다. 이런 삶의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이다.

(2) 자녀의 신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신분의 변화이며 정체성의 변화이다. 옛 신분제도가 있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비록 표면적인 소유가 종 보다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신분상 종이 자신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 사건이다. 주인을 모시고 살았던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은 얼마나 실제적인 의미인지 질문해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변화가 종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자녀에 대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의가 아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라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8:14-17]
1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유업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으로 권위와 권리가 부여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 또한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16절).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안에 있는 권세, 즉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크다.

(3) 온전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구원과 같은 출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인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게 하신다.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이 찾아야 할 몫을 요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애굽기 10:9-10]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10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 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아들, 딸,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다고 바로에게 말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명확하다. '주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출애굽은 단순히 몸만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를 온전히 되찾으며 떠난 온전한 출애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4) 이집트 금

그렇다면 왜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소유'를 요구했겠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서 교부 어거스틴은 '*애굽의 금(Egyption Gold)'도 여전히 금이다*' 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교회가 바로의 금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가지고 나온 금은 애굽사람이 우상숭배에 사용했었다. 어거스틴은 그 금이 나중에 모세의 성막과 제사용품 제작에 사용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였다.

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금을 하나님 보다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하늘이 아니라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과 속'의 개념이 잘못 정리되어 있다.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살고있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집트 금 또한 단순한 금 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집트 금을 사용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사용한다. 무슨 말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빵을 살 수 있고 먹일 수 있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세는 너무나 당당하게 바로에게 왜 이집트 금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말한다.

(5) 바로는 모세에게 이집트 금을 절대 그냥 주지 않는다.

[출애굽기 10:24-26]
24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남겨 두고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하고 말하였다.
25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불로 태워 바칠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26 우리 짐승은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고 가져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선택해야 하며 또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는 어떤 짐승을 여호와께 바쳐야 할지 모릅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재앙이 멈추지 않게 되자, 아이들은 데려가고 양과 소는 남겨두라고 말한다.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만큼 저항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찾아와야 할 소유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2. 우리가 찾아와야 할 하늘의 권세

(1) 당당함

모세는 바로의 요구에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담대하게 말한다. 26절에 보니 '우리 짐승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가져가겠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다.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단호해야 한다. 미련을 두면 안 된다. 부셔야 한다. 사탄에게 주어질 긍휼은 없다. 모세는 온전히 다 찾아오려 했다.

구원을 통해 자녀의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할 몫이 있고, 이제 당당하게 그 일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는 당당할 수 있다. 당당함이 교만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위장된 겸손의 옷을 입고있다.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므로 당당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하늘의 권세를 상속자의 신분으로 취하라.

이제 세상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잃었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권세를 취해야 한다.

모세가 분명하게 이집트 금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위해 하늘의 권세를 자녀의 신분으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오게해야 한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사탄은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처럼 목숨걸고 저항한다. 이제 우리안에 풀어질 하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한 바로와 같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권세'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물의 권세'를, 복음전도를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실제로 요구해야 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목도해야 한다. 하늘의 능력은 추상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필요하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실제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권세를 취하여 나아가자. 자녀의 영으로 나아가라. 기도하며 나아가라. 실제적 열매를 보라. 그리고 갈망하라.